공공적 소란: 1998-2012

PUBLIC COMMOTIONS: 1998-2012

THE ARCHIVE OF 17 SOCIAL ART PROJECTS

2013.9.12 ~ 10.27 아트 스페이스 풀 오프닝: 2013. 9. 12 (목) 6pm

September 12 - October 27, 2013 Art Space Pool Opening: Thu, September 12, 2013, 6pm

공공적 소란: 1998-2012 — 17개의 사회적 |브 프로젝트›는 아트 스페이스 풀이 설립 . <mark>간접적으로 기획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을</mark> 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공공미술'은 지방자치제의 확산과 함께 마치 유행처럼 번지며 관련 티 생<mark>성해</mark>왔으나, 그 양적 증가에 비해, 용어나 방법론에서는 그만의 프레임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가 기금을 바탕으로 커뮤니티외 조응, 협업하는 작업이 많아지면서, '공공미술'이 제도화 되고 있다는 비판도 등장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트 스페이스 풀에서는 '지역연구와 미술 운영위원회 (고승욱 김희진 이솔 이영욱 전용석 2)'를 결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총 <mark>월에 걸쳐</mark>, 위원회의 주도로 진행된 여섯 차례의 크숍에서 제기된 문제와 논의를 토대로, 본 전시는 기존의 공공미술로는 범주화할 수 없는 지형의 '사회적 미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전시에서는 '사회적 미술' 프로젝트들이 80년대 민중미술의 흐름 이후, 90년대 도시화와 소비문화의

Exhibition Overview

discussions and activities produced around

methodologies, and discursive frameworks

are still unclear to many. Some criticize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instrumentalization of art

because these 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local communities in producing artistic projects,

most of which are financially sponsored by the

very local governments. As a way to intervene

into the current landscape of discourse, Art

Space Pool has organized a research group

"Committee of Community Research-based

Art," which held six workshops between April

in service of municipal or central governments,

increasingly asked artists to collaborate with

the term, the definition of public art, its

영향 아래 다양한 시각과 방법들을 발굴해왔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이 프로젝트들은 영토적 의미에 국한된 고정된 구조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집단과 개인>, ‹정주와 이주›를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유연한 형태로 각 지역에 접근해왔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역사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이번 전시는 아트 스페이스 풀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지역연구와 미술' 시리즈를 포함한 17개의 프로젝트를 모아 한 자리에 선보이는 아카이브 뿐만 아니라, 이 들을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재구성하여 *의적<mark>으로</mark> 제안하는 전시를 더해, 두 가지 섹션으로 다. 본 전시는 동시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국내의 다양한 리티 지형과 작가들의 실천을 드러내고, 한국 에서 주목할만한 공공적 흐름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본 전시가, 다양한 '사회적 미술'들이 서로

중첩되고, 맞물리면서 그려낸 지난 15여 년간의 역사를

마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The exhibition Public Commotions: 1998-2012 and June, 2013 and whose members included - The Archive of 17 Social Art Projects will curators, artists, and scholars like Koh Seungrediscover and reconsider artistic practices wook, Heejin Kim, Sohl Lee, Youngwook Lee, that concern the realm of public art and social Jeon Yong-seok, Cho Ji-eun. This exhibition engagement, which for the past fifteen years is thus based on the significant points of discussions developed during the workshops. Art Space Pool has initiated or produced in on with artists in South Korea, Much It seeks to probe the questions of social art (sahoejŏk misul) in a new light, moving away tention, like a cultural trend, in the from the existing categories of activist art t two decades, especially with the growing (hyŏnjang misul) and community art (k'ŏmyuniti

공공적 소란:

PUBLIC

1998-2012 17개의 사회적 미술 아카이브 프로젝트

COMMOTIONS:

The exhibition Public Commotions: 1998-2012 The Archive of 17 Social Art Projects will pay attention to the instances of "social art" practices, which includes artistic projects that are part of the series "Local Research and Art" organized by Pool. These artistic practices, which came after the tides of 1980s minjung art, have formulated new ways to respond to the influences of rapid urbanization and rise of consumerist society, the two important social shifts that took place in 1990s South Korea. Demonstrating multifacetedness and discursive flexibility, these archived projects take up the concept of the "local" or "locality" not as an entity defined within the geographical territory or rigid social structure but as sites in which

past and present, collective and individuals,

settlement and migration. With such an understanding of "local" in mind, the artists have explored a range of methods, such as the research of the everyday on its historical social, and physical conditions, as well as social intervention. The earlier examples of these projects exercise influence on today's artistic practice as providing exemplary precedents, or objects of criticism, on all levels of creation, research, and project proposal, thereby giving us the impetus to bring together a selection of projects in order to retrace the alternative history of public art in contemporary South

The exhibition is two-part: an archive that gathers together 17 artistic projects, and a group of commissioned "archive manuals" that creatively suggest the points of entry into the archive. We hope that the exhibition will explore the wide range of local geographies and artistic practices uncovered in the process of red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and society today. and thereby shed new light on the significant surge of publicness in South Korean art.



이번 전시에 선별된 17개의 프로젝트는 '아트 스페이스 풀'이라는 공간적인 축에 집중하여 '공공미술'의 맥락을 고찰하면서도,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공'이 아니라, 역사 속의 '공공', 보다 현장과 밀착된 형태의 공공성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법론적인 특이성과 더불어 프로젝트 이후에도 다른 작업들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면서 하나의 흐름을 보여준 주요 작업들을 선보입니다. 본 아카이브에는 프로젝트들을 이루는 각종 인쇄물, 책자 등의 활자 자료들과, 사진 이미지,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실물, 그리고 영상작품의 아카이브 등 다양한 자료들이

본 전시에는 17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 총 135명의 약 150 점의 작품과 110여 종의 자료 중, 작기 21명의 70여 점의 작품(41점의 영상, 33점의 실물 포함)과 70여 종의 자료가 전시됩니다. (가변적으로 활동했던 프로젝트의 성격상, 참여작가의 수는 정확하지



Archive

The 17 projects selected for the exhibition

an abstract, conceptual understanding of

"publicness" but rather articulate the kind of

"publicness" that is rooted in histories and

contingent on the given sites. The selection

methodology as well as the degree to which the

given projects have influenced the subsequent

projects. The archive will feature: 1) printed

materials like brochure, exhibition catalogue,

and texts about the projects; 2) photographic

In this exhibition, 70 works and 70 materials

(including 41 videos and 33 real stuffs) of

21 artists selected from 150 works and 110

sculptural objects and video artworks produced

materials of 135 artists who participated in the

17 projects will be on display. (Due to variability

in projects, the number of artists is not fixed.)

criteria include the innovative nature in

documentations of the projects; and 3)

as part of the original projects.

center around the activities of Art Space Pool.

The projects therefore are not about promoting

서행, 질주, 무단침입의

부대 프로그램

Artist Talks

전시 기간 중에 전시기획자, 이론가,

참여작가와 함께하는 두 차례의

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트 스페이스 풀 홈페이지

Please check out our website

talks with curators, artists, and

participating practitioners.

(www.altpool.org) for two scheduled

(www.altpool.org)를 확인해주세요.

여럿 제안 (게스트 큐레이터: 이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은형 (소설), 김지연 (사운드 아트), 문근종 (건축이론)은 각 한 부씩의 '아카이브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창의적으로 구성된 텍스트와 이미지는 아카이브를 재해석할 수 있는 진입 지점을 제안합니다. 갤러리 입구에 비치되는 이 매뉴얼은 도시와 지역의 공간, 사물, 구성원, 사운드 스케이프, 건축사 등을 주제로 한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관객들을 초대하는 동시에, 관객 스스로가 이 전시를 이해하는 또 다른 내러티브를 상상하게끔 이끌어 줍니다.



Ways to Crawl, Gallop, and Trespass (guest curated by Sohl Lee)

The quest curator has commissioned practitioners in four different fields — Han Eunhyeong (short story), Jiyeon Kim (sound art), and Moon Geun-Jong (architecture theory) to produce four different manuals that propose possibilities of creative reinterpretion and entry points into the archived projects. The manuals will be placed at the gallery entrance to invite the viewers to navigate the archive from multiple perspectives that pay attention to the themes of urban space, residents, soundscape, and architectural history — and eventually encourage the viewers to envision their own narratives with which to navigate the archive.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9길 91-5

관람시간 10am - 6pm (매주 월요일, 국경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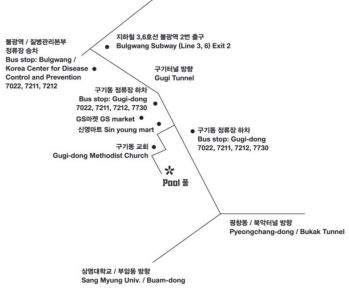
아트 스페이스 풀



91-5, Segeomjeong-r 9-gil, Jongro-gu, Seoul,

T 82 (0)2 396 4805 F 82 (0)2 396 9636 www.altpool.org altpool@altpool.org

Opening Hours 10am - 6pm (Closed on Mondays National Holidays)





미술인들 스스로에 의한 생산적 대안 제시는 여전히 유효한 풀의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6-618258 사단법인 아트 스페이스 품

이솔 (게스트 큐레이터) 이영욱 공간연출 신익균 정지영 홍은주 김형재 번역 최정훈 이솔

조은비 (아트 스페이스 풀 책임

권기예, 손송이 (코디네이터)

정지영, 최재민 (초기 아카이브

Eunjoo Hong, Hyungjae Kim Translated by

Eunbi Jo (Art Space Pool Chief Kiye Kwon, Songyi Son

세검정

우체국

요금별납

JaeMin Choi, Jiyoung Jung (Primary Archive Research Sohl Lee (Guest Curator) Youngwook Lee Space manager Ikkyun Shin Administration Jiyoung Jung Designed by

Jeong Hoon Choe, Sohl Lee



'71 '79 '82 '83 '88 '91 '93 '94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낙원극장〉 (2001. 4. 26 - 5. 8, 대안공간

있는 노인문화를 탐구하고, 낙원극장에 관한

주관적 해석 및 공간 체험 등을 사진과 영상,

기획 및 참여작가 | 김민경, 김은경, 민지애,

풀)은 종로의 공간적 역사적 특성과 맞물려

관객 참여를 통해 드러낸 전시이다.

손혜민, 송미영

- 광주 대단지 사건

(성남프로젝트) ('성남모더니즘'전 | 1998

10. 16 - 11. 4. 서울시립미술관 / '성남과

그 공간의 의미'전 | 1999. 10. 13 - 10. 17,

성남시청 로비)는 한국의 '도시'를 주제로

조사, 연구해온 '변신그룹'으로,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구성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특히, 이 그룹의 초기 전시

'성남모더니즘'과 '성남과 환경미술'은

문제점과 '건축물 장식 조형물'에 관한

도심 외곽 주거환경과 철거 이주민의

국가 주도의 도시 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의식을, 구체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독특한 생존구조와 직결된 "주민미술"의

미학을 발견하고, 재래시장 고유의 유기적

생산, 유통, 분업 네트워크에 주목했다. 이

기획 및 참여작가 | 김태헌, 김홍빈, 마인황,

박용석, 박찬경, 박혜연, 손혜민, 유주호,

사용하여, 이전의 관습적이고 개념화된

미술작업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임흥순, 조지은

과정에서 성남프로젝트 그룹은 다양한 매체를

비판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들의 작업은

환경미술'전 | 1998. 10. 19 - 10. 25,

성남시청 로비 / '모란장

'문예진흥법'에 제도화

(공공의 꿈, 종로 | 낯선 거리에 대한 몇 가지

에피소드> (2002. 9. 23 - 10. 1, 대안공간

풀)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자생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들의 서사가 각축하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준 프로젝트이다.

송상희, 양성윤, 조습, 한만수(반이정),

아우토노미아 라이스 그룹,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럭키종로 프로젝트

기획 | 풀공공미술협의회

자신의 구역을 형성해온 종로를 대상으로

참여작가 | 윤정미 · 전용석, 김매리, 박주연,

— 1% 건축조형물법이 권장사항으로

— 1% 건축조형물법이 전국적으로 의무화

《도시와 인권 - 믹스라이스》 (2002. 11.

29 - 12. 10, 대안공간 풀)은 대안공간

네트워크 전 '럭키서울'(2002. 11. 29

12. 31, 국내 7개 대안공간)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럭키서울'은 압축성장을

이룬 서울 곳곳에 새겨진 근대적 시간의

흔적들을, 각 대안공간의 특성과 활동을

통해 재구성하여 국내외 대안공간들 간의

인권 - 믹스라이스>전에서 믹스라이스는

다이어리'를 통해 그들에 대한 휴머니즘적

참여작가 | 임흥순, 장효정, 전용석, 조지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제작한 '비디오

시선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대를 도모한 네트워크 전시이다. ‹도시와

— 〈도시대중문화〉, 덕원미술관 '상계동 올림픽' (푸른영상) 제작

제1회 예술과 마을전 (예술과 원골)

《표류에의 초대 | "Invitation to Drift"

(2003, 2, 28 - 3, 17, 마로니에미술관)는

서울의 도시문화와 심리지리에 대한 비평 및

서사로 읽기 어려운 도시 서울에서 자기 삶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한

한 시도였다.

기획 및 참여작가 | 플라잉시티

분투들을 "표류"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사업으로 '청계아카이브관 무쇠구름'이

연구를 해온 플라잉시티의 전시로, 단일한

한국자연미술가협회, 야투

― 쌈지스페이스 개관 - ·뼈: 아메리칸 스탠다드› (기획자: 최정화) 아트선재센터 개관 제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 주제: 경계를 넘어

(Beyond the Borders)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의무조항으로 설정

《입주를 축하합니다》 (2004. 11. 12 - 11.

23, 대안공간 **풀)**는 '조감도'의 형식을

일면을 드러내고자 한 전시이다. 조감도

'보석반지'라는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작가

김상돈은 한갓 보석반지에 불과한 대도시

문화, 역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참여작가 | 김상돈

빌어 뒤틀린 도시개발 계획과 정책의

속의 고층건물은 귀부인 손에 끼워진

·청계천 프로젝트› (2003 - 2009)는

플라잉시티가 2003년 입정동 리서치를

시작으로, 청계천의 고유한 생태리듬을

토크쇼 '이야기 천막', 2005년의 '키네틱

2008, 2009년에는 서울 도시갤러리

기획 및 참여작가 | 플라잉시티

알아간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후 플라잉시티

작업은 2004년 황학동 노점상들과의 길거리

워크숍'과 '청계미니박람회' 전시로 이어지며,

- (민준미술 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황학동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 출범 IMF 경제위기

국제교류 프로젝트 | <도어 투 도어 2 |

누가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는가? (2004.

12. 2 - 12. 4, 주관 | 대안공간 풀, 주최 |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기획 | 박찬경, 백지숙

조그라프, 김대중, WHW

아파트 단지와 빌딩 이면에 잊혀진 자연, 감정, 토미취, 쿨투르캄프, 노재운, LED ART,

안드레아 쿨룬치취, 블라디미르 니콜리취,

플라잉시티, 로우파이 비디오, 알렉산다르

슈카르트, 알렉산다르 스탄코프스키, 밀리카

대안공간네트워크)는 구 유고슬라비아에

김대중 제15대 대통령 취임

— 〈성남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

(최정화 개인전), 국제갤러리

— 〈도시와 영상: 의식주〉, 서울시립미술관

- Dislocation-Relocation

성남시 로비

— 〈낙원극장〉, 대안공간 풀

— 〈대인지뢰〉, 대안공간 풀 — 《선샤인 – 남북을 비추는 세가지 시선》. 인사미술공간

플라잉시티 결성 '포럼A' 창간 (편집인: 전용석, 편집위원: 강홍구, 박찬경, 백지숙, 전용석, 황세준) 퍼포먼스 반지하 결성

미디어시티 서울 (현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창립

공공문화개발센터 유알아트 설립 - 문화연대 설립

아트인 오리 설립, 부산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 (현 부산비엔날레) 개막

— 《주차장프로젝트 1》, 아트선재센터 - 〈한국 현대미술 신세대 흐름: 믹서&쥬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제1회 공장 미술제,

《예술가의 집: 비 정착지대》

대안공간 풀 개관

대안공간 섬 개관, 부산

속했던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젊은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국제교류 심포지엄이다. 이 심포지엄과 더불어 개최된 전시 '새로운 과거' (2004. 12. 4 - 2005. 2. 3, 마로니에 미술관)는 국제교류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정치, 문화, 역사, 지리적인 차이를 보이는 타자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제교류 프로젝트 | ‹시제일치 | 레바논과 우리 자신과 20세기라는 가까운 과거를 팔레스타인의 메시지 (2005, 12, 16 -돌아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새로운 과거' 2006. 1. 11,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전은 2002년 인사미술공간이 기획했던 풀)는 <도어 투 도어 2>의 이듬해에 열린 전시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국제 대안공간 심포지엄 '도시의 기억, 슬로베니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간의 역사'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보다 작가, 큐레이터, 비평가들을 초대했다. 이 전시에서는 단절된 기억과 그로 인한 참여작가 | 마리나 그르지니취, 아이나 슈미드, 시간대별 소통의 단절을 어떻게 극복할 이고를 그루비취, 알베르트 헤타, 어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전시와 함께 심포지엄.

워크숍, 상영회를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였다.

왈리드 사덱, 잘랄 투픽, 조안나 하지토마스와

기획 | 시제일치기획위원회, 박찬경, 백지숙

참여작가 | 라비 무루에, 빌랄 크바이츠와

칼릴 조지, 토니 샤카와 나지 아씨

·안녕하세요› (2005. 4, 경기 북부 4개 지역 - 동두천, 평택, 여주, 양주)는 경기북부일대 공공성과 공공미술에 관한 논의가 주로 4개 지역을 작가들이 사전답사를 한 후, 미군 공공장소에 집중되어 온 것과는 달리, 부대와 지역경제의 유착을 비롯한 그 지역의 이 프로젝트는 공공적 커뮤니케이션과 현안을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사회, 심리, 문화적 풍경을 그려보고자 한 관한 것을 주제로 다루었다. 프로젝트이다. 기획 | 김상돈 채은영 (코펜하겐자유대학) 참여작가 | 김상돈, 김홍빈, 이정주, 장여진 참여작가 | 스태틱, 16비버, 코펜하겐자유대학 참여작가 | 김상돈, 이지아

(프로젝트 1, 공공의 기대, 공공의 잠재력 | 정의 (2006. 8. 12 - 9. 17,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풀)는 국제 작가포럼 (AFI)이 주관한 문화행사 '공공의 순간'(2006. 9.5 - 9. 30, 갤러리 숲, 갤러리 꽃, 대안공간 루프, 쌈지 스페이스)의 일부로 대안공간 풀에서 진행된 워크숍이다. '공공의 순간'은 여러 대안공간에서 열린 전시(기획: 김윤경)로, 공공영역과 만나는 예술의 가장 현재적인 흐름을 보여주고자 기획되었다. 이전까지의

- 〈공공의 꿈, 종로: 낯선 거리에 대한 몇 가지

- 《대안공간 네트워크전: 럭키서울》, 국내 7개

- 자건축프로젝트 2002: 서울에서 가장 살기

'서울 아케이드 프로젝트' (강수미, 노명우)

제4회 광주비엔날레 초청 워크숍: Communit

' 밀머리'미술학교 (대표: 박찬국) 설립, 여주

좋은 잠실동 안양의 명당 석수동》, 스톤앤워티

에피소드), 대안공간 풀

and Art

— 믹스라이스 결성

스페이스 빔 설립, 인천

· 창동 미술창작스튜디오

대안공간 반디 개관 (구: 대안공간 섬)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설립, 안양

· (현국립 창동창작스튜디오) 개관

(2007년 다시 동두천을 주목하는 이유) 경제와 역사, 도심환경을 재조명하고, 인터페이스, 여론 형성과정 등 '공공적 시간'에 비롯한 다양한 하위주체들의 기억을 프로젝트이다 기획 | 김보형 (스태틱), 김희진 (16비버), 기획 | 고승욱

— ‹표류에의 초대: "Invitation to Drift"›,

- 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 참여정부 출범

— 〈입주를 축하합니다〉, 대안공간 풀

마로니에 미술관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

— 〈도어 투 도어 2: 누가 지역의 현실을

오아시스 프로젝트 목동예술인회관 점거

- 〈안양천 프로젝트 - F.L.O.W〉, 스톤앤워터,

시민문화기업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출범

생각하는가?>, 대안공간 풀 / ‹새로운 과거›,

마로니에 미술관

- 공공미술 프리즘 설립

고양 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

— 대추리 현장예술

(2007. 2. 2 - 2. 17, 대안공간 풀)는 한국 근. 현대사와 동시대 기억에서 쉽게 잊혀지거나 간과되어온 미군주둔지역으로서 동두천의 그곳의 주민인 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호출하여, 그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자 한

프로젝트이다.

《마석가구단지》 (2007, 9, 1 - 9, 16, 대안공간 풀)는 한센병으로 수도권에서 쫓겨나 마석으로 강제 이주해야만 했던 한국의 역사적 소수자들과 이주노동자 커뮤니티, 그리고 신생 가구 산업단지를 "고향"이라는 키워드로 중재, 연결해보려는

기획 및 참여작가 | A&C 삼거리

- (공공의 순간 (AFI 2006 예술감독: 박찬경)›, 인사미술공간, 대안공간 풀 (명륜동에서 찾다), 명륜동 동네 곳곳

(주최: 접는 미술관) - 아트 인 시티 Art in City 프로젝트 (2006-2007): 소외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사업 (문광부, 운영위원장: 김용익) 오픈 스페이스 배 개관 (구: 아트인 오리)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개관

~ (2007년 다시 동두천을 주목하는 이유). 대안공간 풀

— 〈안보관광〉, 대안공간 풀 — 《마석가구단지》, 대안공간 풀

— 〈동아시아의 목소리〉, 대안공간 풀

— 《동두천: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 인사미술공간

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2007-2011) AFI 2007 (조직위원장: 설원기, 프로젝트

(동두천 | 기억을 위한 보행, 상상을 위한

보행 (2007. 12. 1 - 2008. 2. 24,

HUB의 의제에 공감하며 시작한

뉴뮤지엄, 인사미술공간)은 뉴뮤지엄이

기획한 프로젝트 'Museum as HUB'의

프로젝트이다. 작가들은 지역주민과의

토대로 아이디어 교류, 협의, 제안하는

현안들을 발언하고,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획 | 김희진

직접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한 조사과정을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침묵해온 동두천의 다층적 서사와

참여작가 | 고승욱, 김상돈, 노재운, 정은영

참여기관인 인사미술공간이, "이웃"이라는

디렉터: 김윤경) 동두천 레지던스 프로젝트, 프로젝트스페이스 D

다원예술매개공간 (2007-2009. 시제일치: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메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관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 개관, 안산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청계천 광장 조형물 작가 발표 – 클래스

(안녕하세요), 경기북부 4개 지역 (동두천, 평택

성계미니박람회›, 입정동 내 금속가공공방 및

여주, 양주)

서울시립미술관

만들기' 지원사업

인사미술공간/대안공간 풀

올덴버그의 '스프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생활문화공동체

《동아시아의 목소리》 (2007. 11. 14 - 11.

30, 대안공간 풀)는 제국에 의해 대상화한

시각이 내포된 '동아시아'라는 이름의 장소를

개발과 저항, 경계와 흐름, 그리고 여성이라는

쟁점으로 면밀히 읽어보고자 한 전시로,

참여작가 | 강동형, 고승욱, 권진, 김미영,

장윤주, lin-lam, mixrice, ps.press,

김지혜, 정석우, 기는풍경, 김민경, 이지아,

세미나와 워크숍을 함께 진행하였다.

기획 | 고승욱 (1, 2부),

오혜주, 박세정 (3부)

김화용, 신현, PK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성남문화재단) '예술이 흐르는 골목길' (서울시 중구청)

석수 아트 프로젝트

—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 광주비엔날레 '문전성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프로젝트 (문광부) '우리 동네 문화 가꾸기' 사업 (문광부)

-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전시이다.

기획 | 고승욱

참여작가 | 양성윤

 서울시 창작공간 조성 사업 추진: 금천예술공장,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케이드 개관

경기창작센터 개관

인천아트플랫폼 개관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설립, 문래동 - '문화이모작' 사업 (문광부, 농촌지역 문화재생

'생활문화공동체사업' 시행 (문광부)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일몰제 적용: 2014년까지

재검토하여 유지여부 결정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선택적 기금제 도입)

'마을미술프로젝트' (문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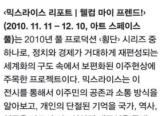
— 용산 참사

두리반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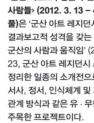
- 《믹스라이스 리포트: 웰컴, 마이 프렌드!》, 아트 스페이스 풀

(**안보관광**)은 작가 양성윤의 개인전 '대인지뢰' (2001. 7. 18 - 7. 24, 대안공간

풀) 이후, '지역연구와 미술' 시리즈 중 하나인 '안보관광' (2007. 12. 7 - 12. 19, (믹스라이스 리포트 | 웰컴 마이 프렌드!) 대안공간 풀)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볼 (2010. 11. 11 - 12. 10, 아트 스페이스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대인지뢰'는 휴전선 풀)는 2010년 풀 프로덕션 (횡단) 시리즈 중 인근 마을에 매설된 대인지뢰와 그로 인한 하나로, 정치와 경제가 거대하게 재편성되는 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하여 이를 다큐멘터리 세계화의 구도 속에서 보편화된 이주현상에 사진의 형식으로 드러냈고, '안보관광'은 대북 주목한 프로젝트이다. 믹스라이스는 이 안보의 상징이자, 국가 관할 영역인 DMZ 일대와 철원지역에서 벌어지는 국가경제와 알아보고, 개인의 단절된 기억을 국가, 역사, 민간경제의 기이한 공생관계를 주목한 인종을 가로지르는 상상적 재구성을 통해 서로 연결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기획 | 김희진



참여작가 | 믹스라이스



기획 | 김희진

— 〈군산리포트:

생존과 환타지를

운영하는 사람들

아트 스페이스 풀

- 문래예술공장 개관







— 제1회 일맥 아트 프라이즈

월스트리트 점거운동

사람들 (2012. 3. 13 - 4. 29, 아트 스페이스 풀)은 '군산 아트 레지던시'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적 성격을 갖는 전시 '우여곡절 군산의 사람과 움직임' (2011. 9. 24 - 10

23, 군산 아트 레지던시 스튜디오)을 다시금 정리한 일종의 소개전으로, 군산의 삶의 형태 서사, 정서, 인식체계 및 가치관, 상호간의 관계 방식과 같은 유 · 무형의 인적 요소에 참여작가 | 개복인, 경호회, 권용주, 김진기

김청진, 김혜원, 믹스라이스, 백현주, 유턴 조은지, ps

6 '07 '08 '09 '10 '11 '12 '71 '79 '82 '83 '88 '91 '

Intersection

In the city of Maseok, which is near Seoul, the project group A&C Three Way Intersection investigated various histories of Maseok: the settlement of lepers, who were driven out of the capital, the establishment of furniture industry, and the recently formed community of migrant workers from other Asian countries. The key word of hometown serves as a framework to explore the connections and intersections between the multi-layered histories and groups.

Voices of East Asia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Project Period: November 14—30, 2007

Produced by: Koh Seung-wook, Oh Hae-ju, Park Se-jung Participating Artists: Kang Donghyung, Koh Seung-wook, Crawling Scenery, Kim Min-kyung, Kim Jihye, Kim Hwa-yong, Shin Hyun, Lee Jia, Jang Yoon-joo, Jang Seok-woo, lin+lam, mixrice, PK, ps. press Voices of East Asia is the title for workshops, seminars, and an exhibition planned with the goal of exploring the geographical region and conceptual frame of East Asia, which has always been imbued with imperialist history and perspective. The exhibition focused on issues such as

Dongducheon: A Walk to Remember, A Walk to Envision Location: Insa Art Space, New

development and resistance, boundary

and flow, and women.

Museum
Exhibition Period: December 1,
2007—February 24, 2008
Curated by: Heejin Kim
Participating Artists: Koh Seungwook, Sangdon Kim, Rho Jae-oon,
siren eun young jung

Dongducheon is a project initiated

by Insa Art Space, which was then a participating institution of the "Museum as Hub" organized by New Museum, New York. Insa Art Space's initiative was based on its sympathizing with the "neighbor" agenda set out by the Hub. Participating artists conducted survey with local residents through direct conversations, communication, and by exchanging, discussing and suggesting ideas. The multi-layered narratives formed by the artists give rise to the pending issues of the Dongducheon area that have been kept in silence.

Security Tour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December 7—19, 2007

Curated by: Koh Seung-wook Artist: Yang Sung-yoon

Focusing on the odd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private economies that takes place in the De-Militarized Zone and the nearby city of Cheorwon, artist Yang Sungyoon followed the "security tour" routes set in Cheorwon. Yang had already investigated antipersonnel mines and the damages they caused by surveying residents, and presented his findings as documentary photographs in his solo exhibition, entitled Antipersonnel Mine and held in 2001 at Alternative Space Pool.

Mixrice Report: Welcome My Friend! Location: Art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November 11— December 10, 2010 Curated by: Heejin Kim Participating Artists: Mixrice (Yang Chul-mo, Cho Ji-eun)

Mixrice Report is a part of the Transversal series produced by Pool in 2010 which investigated the phenomenon of migration prevalent in the globalizing, larger-than-ever structure of politics and economy. Mixrice members seek to understand the method of coexistence and communication among migrants, and go further to suggest the ways in which to connect suppressed memories of individuals in their imaginative reconfiguration that transverses state, history and ethnicity.

Gunsan Report: Operators of survival and fantasy

Location: Art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March 13—April 23, 2012

Curated by: Heejin Kim
Participating Artists: Gaebokin,
Kyunghohoe, Kwon Yong-ju, Kim
Jinkey, Keem Cheongjin, Kim Haewon, Mixrice, Beak Heaven, U-turn,
Cho Eun-ji, ps.

This exhibition reintroduces a previously held exhibition, titled *Twists Turns Ups Downs: (In)visible Move and Human Agency* (2011) and planned as part of the Gunsan Art Residency project. The entire project, as well as the exhibitions, focused on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uman elements of Gunsan: life form, narrative, emotion, systems and values of recognition, interrelation methods, etc.

2013 POOL PRODUCTION

PUBLIC COMMOTIONS: 1998-2012

THE ARCHIVE OF 17 SOCIAL ART PROJECTS

SEPTEMBER 12 – OCTOBER 27, 2013 ART SPACE POOL

ARCHIVE OVERVIEW

Seongnam Project

Exhibitions: Seongnam Modernism

(as part of group exhibition 1998 City and Image: Food, Clothing, Shelter, Seoul Museum of Art, October 16-November 4, 1998); Seongnam and Environmental Art (Seongnam City Hall Lobby, Ocrober 19-25, 1998); The Meaning of Space, Moran Market (Seongnam City Hall lobby, October 13-17, 1999) Participating Artists: Kim Tae-heon, Kim Hong-bin, Mah In-hwang, Park Yong-seok, Park Chan-kyong, Park Hye-yeon, Son Hye-min, Yoo Ju-ho, Im Heung-soon, Cho Ji-eun Seongnam Project was self-claimed as a "transformative group," which conducted research of Korean cities, such as Seongnam, and produced a total of three bodies of work that respond to highly versatile conditions and situations. For the first two exhibitions in particular, Seongnam Modernism and Seongnam and Environmental Art, Seongnam Project members conducted concrete and detailed research with "sociological attitude" around the consequences of state-run urban developments and the "Law of Decorative Sculptures for Buildings," through which the national government has required large-scale building owners to erect in or near the building complex for the beautification of public space. Furthermore, Seongnam Project discovered the aesthetics of "resident art," which concerns the distinctive system of survival for those evicted from a slum area in Seoul to collectively settle in Seongnam, a low-income satellite city off the capital. The artists' attention to "resident art" to a certain extent comments on the government's top-down urban development policy. On one instance, Seongnam Project's research concerned the

type of organically formed network of

www.altbool.o

Paal

'93 '94 '95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ivision of labor among the migrant residents in Moran Market, a traditional market unique to Seongnam. The work of Seongnam Project involved a diverse range of mediums, such as research, documentary photography, sculpture, installation, video, and print media, opening up a new chapter in conceptually driven art practice.

Nakwon Theater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April 26—May 8, 2001

Artists: Kim Min-kyung, Kim Eunkyung, Min Ji-ae, Son Hye-min, Song Mi-young

Participating artists conducted research on the culture of senior citizens unique to the neighborhood of Jongro and its spati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The artistic practice involved a degree of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nd was later exhibited as photographs and videos that reveal subjective interpretation and spatial experience of the Nakwon Theater—a movie theater most often attended by the senior citizens perennially occupying this area.

Jongro, Public Dream: several episodes about strange streets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September 23— October 1, 2002

Artists: Yoon Jeongmee, Jeon Yong-seok, Kim Mae-ri, Park Joo-yeon, Song Sang-hee, Yang Sung-yoon, Jo Seub, Han Man-soo (Ban Ejung), Autonomia Rice Group, Cultural Action-The Committee for Spatial & Environment, Lucky Jongro Project Produced by: Public Art Council Jongro, Public Dream is about Jongro, a commercial district filled with small business owners who with a degree of autonomy maintain diversity within the

organically formed neighborhood. This project as an activity and an exhibition shows the ways in which narratives of various communities compete and contest.

City and Human Rights-Mixrice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November 29— December 10, 2002

Artists: Im Heung Soon, Chang Hyojung, Jeon Yong-seok, Cho Ji-eun Lucky Seoul: Alternative Space Network Exhibition (November 29-December 31, 2002) had an aim to reveal the residues of early 20th century modern Korea that are still traceable throughout Seoul. Here, Seoul was considered as a megacity that has undergone a highly compressed process of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expansion. As a "network exhibition" that interweaved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activities of seven alternative art spaces in Korea, Lucky Seoul simultaneously promoted collaboration, and possibility of solidarity, among alternative spaces in Korea and abroad. Alternative Space Pool participated in this multisite exhibition, by presenting City and Human Rights-Mixrice held on November 29—December 10, 2002. For the exhibition, the artist collective Mixrice sought to go beyond the humanistic representation of migrant workers by asking the workers, mostly from other Asian countries like Bangladesh, Nepal, and Indonesia, to produce themselves their own video

Invitation to Drift

diaries.

Location: Marronnier Art Center Exhibition Period: February 28— March 17, 2003 Produced by: FlyingCity (Kim Gi-soo, Jang Jong-kwan, Jeon Yong-seok) FlyingCity is an artist group dedicated to exploring Seoul's urban culture and psychogeography. The concept of "drift" provided the framework with which to understand Seoul, a city impossible to situate within a single narrative, and various struggles composing the lives within the urban space.

Cheong Gye Cheon Project
Project Period: 2003-2009
Artists: FlyingCity (Jang Jong-kwan,
Jeon Yong-seok)

Cheong Gye Cheon Project encompassed a range of productions based on FlyingCity's long-term research about the ecological rhythm in the neighborhoods surrounding the Cheong Gye Cheon, or the Cheon Gye Stream that flows across downtown Seoul. The project began in 2003 in Ipjeong-dong, and later developled as Story Tent (2004), a street talk show with Hwanghak-dong street vendors. and Kinetic workshop and Cheong Gye Mini Exhibition (2005). In 2008 and 2009, Cheong Gye Archive: Iron Cloud opened as a part of the "Urban Gallery Project" initiated by the city of Seoul.

Congratulations on Moving in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November 12-23, 2004

Artist: Sangdon Kim

In the exhibition Congratulations on Moving In, Kim borrowed the format of aerial view in order to reveal certain aspects urban development. Kim considers high-rise buildings seen from an aerial view as a jeweled ring on a noblewoman's finger. Through this image-making, Kim attempted to call attention to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nature, emotion, history and culture that are forgotten in between metropolitan apartments and buildings that have become no more than a ring with gemstone.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Door to Door 2: Who cares about regional realities?

Conference Period: December 2—4, 2004

Hosted by: Alternative Space Pool Sponsored by: Alternative Space Network

Curated by: Park Chan-kyong, Beck Jee-sook

Participating Artists: Milica Tomic, Albert Heta, Aleksandar Stankovski, Skart, LED ART, FlyingCity, Irwin, Vladimir Nikolic, Andreja Kuluncic, Igor Grubic, Jae-oon Roh, KulturKampf, Marina Grzinic & Aina Smid, LOW-FI VIDEO, Aleksandar Zograf, Dae-joong Kim, WHW(What,

How and for Whom)

Door to Door 2: Who cares the local realities? is an international exchange symposium, which introduced works of young artists, curators and critics from Serbia-Montenegro, Croatia and Slovenia, the three countries part of the former Yugoslavia. New Past (December 4, 2004 - February 3, 2005) was an international exchange exhibition planned in conjunction with the symposium, which probed into an understanding of the Other with political, cultural, historical and geographical differences, and looked back, self-reflexively, on the recent past of 20th century Korea. The exhibition New Past continued and expanded the questions and discourses arising from City's Memories, History of Spaces, an international alternative space symposium planned by Insa Art Space in 2002.

International Exchange Projects
Tense Agreement: Messages from
Lebanon and Palestine
Location: Insa Art Space,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December 16,
2005—January 11, 2006

Produced by: Tense Agreement **Planning Committee** Participating Artist: Rabih Mroue, Bilal Khbeiz/Walid Sadek, Jalal Toufic, Joana Hadjithomas/Khalil Joreige, Tony Chakar/Naji Assi A year after the symposium Door to Door 2, artists, curators and critics from Serbia-Montenegro, Croatia, Slovenia, Lebanon and Palestine were invited for the exhibition Tense Agreement: Messages from Lebanon and Palestine. The goal was to discuss and seek the ways in which to ways, by holding symposiums, workshops and film screenings, to overcome severed memories and the communication gap between different periods that are caused by such severance of

Anyonghaseyo (Hello)
Location: Dongducheon,
Pyeongtaek, Yeoju, and Yangju in
Northern Gyeongi Province
Project Period: April, 2005
Produced by Sangdon Kim
Participating Artists: Sangdon Kim,
Kim Hong-bin, Lee Jung-ju, Jang
Yeo-jin

Hello is a project in which artists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on the four cities in Gyeongi Province, by taking in the residents' point of view on the current issues such as the alliance of regional economy and the US Army base located in the area. Participating artists sought to present a social, psychological and cultural landscape of the region.

Project 1, Collective Expectations,
Collective Potentials: Justice as part
of Public Moment (2006)
Location: Insa Art Space, Alternative
Space Pool
Period: August 12—September 17,
2006
Produced by: Kim Bo-hyung, Heejin

Kim, Chae Eun-young Participating Artists: Static, 16 Beaver, Copenhagen Free University

The workshops Project 1, Collective Expectations, Collective Potentials: Justice as part of Public Moment, an assembly of cultural events hosted by Artist Forum International (AFI) and presented during September 5-30. 2006 in alternative art spaces like Gallery Soop, Gallery Cott, Alternative Space Loop, and Ssamzie Space. The workshops held at Insa Art Space and Alternative Space departed from previous discussions on publicness and public art, which focused mainly on public spaces, in order to envision "public moments" in terms of public communication, interspace, and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The Reason for observing

Dongducheon again in 2007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February 2—17,
2007

Curated by: Koh Seung-wook Participating Artists: Sangdon Kim, Lee Jia

The research project, and the ensuing exhibition, shed new light on Dongducheon, an area near the De-Militarized Zone and a site for a US military camp. The economy, history and urban environment of Dongducheon have been easily forgotten or dismissed in the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and memory at large. By summoning the memories of subalterns, including resident sex workers and foreign workers in the area, the project intended to give them a voice.

Maseok Furniture Complex Location: Alternative Space Pool Exhibition Period: September 1—16, 2007

Produced by: A&C Three Way